

# NCKPC NEWSLETTER

“후일에 자손이 묻거든”  
- 수 4:6 -

2020. 3. 7.

www.nckpcusa.org

## 1. 총회장 메시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회원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태리, 그 외 많은 나라들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7일)까지 330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회원교회들 모두 코로나 전염병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공포를 준 전염병은 흑사병이었습니다. 1347년 중국에서 무서운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4년 만에 온 유럽으로 전염되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1/3

이 흑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때 기독교(가톨릭)는 흑사병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매도했으며 환자들을 위호하기보다는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들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7:13-14)

하나님은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하면 스스로 결손히 자기 성찰을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양을 찾아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치유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에서 시형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다 이단의 그물에 걸린 희생자들입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사순절에 회개 기도의 바람이 토네이도처럼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5월 휴스턴 총회가 9월 15(화)-18일(금)로 연기되었습니다. 9월 총회에서 기쁜 얼굴로 만납시다. NCKPC 사역을 위해 회원교회 회비를 NCKPC 회계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총회장 최병호 목사 드림 (원문)

## 2. NCKPC 임원회 소식

- 임원회에서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의 파손된 본당의 복구를 돕기 위해 긴급구호금 \$2,000.00를 지원하였습니다.
- 임원회에서는 이유신 목사께서 요약하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교회 당회의 대처방안](#)을 전국 회원교회에 배포하여 오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회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임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하여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제 49회 총회 및 전국대회를 9월 15일(화)~18일(금)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개월 뒤로 연기하고 그에 따른 준비일정들을 모두 조정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총회 날짜로 인하여 다른 기관에서 계획하는 행사들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날짜 조정에 협조해주시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3. 총회장 동정

- 2월 13일: 교통사고로 본당이 파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를 돕기 위해 회원교회들의 [긴급후원을 요청하는 목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또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회 서신](#)을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로 발송했습니다.
- 2월 22일: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 Rev. J. Herbert Nelson께서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를 간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성명서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즉시 전국 한인교회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는 목회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인교회는 정서기의 성명서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기도 요청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겠으며 그의 영적 지도력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OGA의 최정석 목사를 통하여 정서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4. 대회/노회/교회 소식

- KPC 회장단 모임: [2020 KPC 회장단 모임](#)이 2월 10일~12일 휴스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 감사편지: NCKPC의 후원에 감사하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김재철 목사와 교우 일동의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 각 대회, 노회, 교회에서는 Newsletter를 통해 회원교회에 알리고 함께 축하하거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보내 주셔서 NCKPC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28일까지 소식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nckpc@nckpc.org](mailto:nckpc@nckpc.org)).

## 5. 총회 한인목회실 소식

- 총회 한인목회실에서는 교회가 부지 중에 질병을 확산시키는 장소가 되는 것을 막고, 교단 산하 교회들과 교우들이 건강하도록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여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해외(특히 한국과 중국)를 다녀온 분들은 스스로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적어도 2주간(14일) 동안 자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2020년 미국장로교 산하 한인교회와 한인 목회자들의 [주소록](#)이 완성되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6. 지역 모임 확인 안내

-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와 교육 모임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행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개최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최측에 개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선교지 소식

- NCKPC 협력선교사인 은두라스 권영갑 선교사님으로부터 1월, 2월 [선교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 8. 목회자 청빙 안내

- [아름다운교회](#) (3월 17일까지 접수)
- [월빙턴 한인장로교회](#) (3월 21일까지 접수)
- [락빌 한인장로교회](#) (3월 31일까지 접수)
-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3월 31일까지 접수)
- [두나미스장로교회](#) (4월 4일까지 접수)
-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4월 18일까지 접수)
- [뉴욕평안교회](#) (4월 22일까지 접수)
- [워싱턴 평강장로교회](#) (4월 30일까지 접수)
- [한미장로교회](#)

## 9. NCKPC 희년 안내

- 2021년은 NCKPC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NCKPC 제 48회 총회에서는 2021년을 NCKPC 희년으로 지킬 것을 결의하고, 희년 준비 위원회(위원장: 날후날 장로)를 구성하여 희년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 축제: 지난 50년을 감사하는 축제로서의 희년 행사 준비
  - 목회와 신학: 미국장로교에 소속된 NCKPC 교회의 교단 신학 확인 및 목회적 도움 추구
  - 교단 관계: 미국장로교 내 한인교회의 입지 향상 및 선한 영향력 행사
- 희년위원회에서는 희년 사업을 위한 안내 및 Fundraising 을 진행 중입니다. 뒤에 [안내문](#)과 [희년 기금용지](#)가 있습니다. 프린트용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10. NCKPC 역사적 자료와 기록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안내

- 2021년은 NCKPC 50주년의 희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제 48회(2019) NCKPC 총회는 희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0년간의 NCKPC 산하의 지교회, 한미노회, 대회협의회, 전국총회와 산하기관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역사위원회” (위원장: 김선배 목사)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1일에 NCKPC 산하 모든 지교회에 이에 대한 안내서신과 [부조슈어](#)를 발송하였고, 여기 다시 첨부하였습니다. 희년을 준비하는 이 때에, 지난 50년 동안의 NCKPC 교회들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나누며, 후세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이 중대한 역사적 과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 지교회 이외의 한미노회, 대회협의회, 그리고 NCKPC 전국총회와 산하기관의 지도자들에게는 각 분야의 책임을 맡은 역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별도로 접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11. NCKPC 연회비 안내

- NCKPC는 교단의 내외적인 Issue에 대해 대처하면서 한인교회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동성애 문제 등으로 인해 교단 내외적으로 한인교회가 오해를 받는 문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고, 교단 안에서 한인교회가 소수 교회로서 받는 부당한 문제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며, 교단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할과 동시에 한인교회나 모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 Project를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들이 보내오는 연회비는 NCKPC가 교단 안에서 Caucus로 사역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 아직 연회비를 보내지 않은 교회는 속히 보내 주셔서 NCKPC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부 응지\]](#)
- 연회비: 활동교인 당 \$10
- 연회비 우송 정보
  - o Payable to: NCKPC
  - o 주소: Esther Lee (NCKPC Treasurer)  
30563 Calle De Suenos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 o Note: Memo난에 'NCKPC 회비'라고 적고, 교회 이름과 달일목사 이름을 명시하십시오.